

“법 앞에 평등” ... ‘자승자박’ 이명박

전직 대통령 구속 ... 헌정 사상 4번째 다스·BBK 등 의혹 검찰 수사 ‘탄력’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전직 구속됐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아 온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4번째 구속되는 불명예를 남겼고, 그동안 제기됐던 다스와 BBK 추가조사 등 술환 의혹에 대한 수사도 그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영장 청구 다음날인 지난 20일 비서실 명의로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21일 오후 변호인 출석 여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면서 심문 기일이 무산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



(DAS)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40억원대 비자금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을 불법으로 반출해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은닉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하는 방안이 준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구치소에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수감됐다. 옛 성동구치소가 명칭과 직제를 바꾸고 현 장소로 이전했다.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과 같은 3명 가량 크기의 독거실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첫 구속된 전직 노태우 전 대통령 이었고, 이어 전두환·박근혜 대통령도 각각 구속되는 불명예를 남겼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개헌안 ... 총리·국회 권한 강화, 선거연령 18세로 명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분산하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된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 사면과 관련, 사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자의적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한편 감사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가운데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돼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되는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 비례제 원칙도 포함됐다. 이로써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가를 공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구례 산수유 마을 노랗게 물든 봄

22일 구례군 산동면 현천마을에 ‘봄의 전령사’ 산수유 꽃이 활짝 피었다. 마치 한 폭의 ‘노란수채화’처럼 시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산수유를 보기 위해 최근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노인 > 유소년 ‘인구 역전’

통계청 ‘2017 한국 사회지표’ 고령 노인 인구 38.3% 최고

지난해 국내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전남은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관련기사 2면>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전체 여성 중 절반 이상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대책이 절실하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07만6000명(13.8%)으로, 0~14세인 유소년 인구 675만 1000명(13.1%)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지난 2016년만 해도 유소년인구(685만 6000명·13.4%)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676만3000명·13.2%)보다 많았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오는 2030년이면 24.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고 2040년 32.8%, 2060년 41.0%까지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해 전남이 21.5%로 가장 높았다. 올해도 지난 2월 말 기준 21.6%(40만8882명)로 2개월만에 0.1%p가 증가한 상황이다. 전남에서는 고령의 노인인구 비율(38.3%)이 올 2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고, 곡성·구례·보성·장흥·강진·함평·완도·진도·신안 등 10개 지역이 노인인구가 3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15~64세 생산가능인구도 지난해 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총인구는 5144만 6000명, 인구성장률은 0.39%로 앞으로 2032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 인형뽑기 인기 시들 기계 방치 ▶ 6면
- 금호타이어 사태 변곡점 맞나 ▶ 10면
- 신 팔도유람-제주도 봄 축제 ▶ 16면

“반갑다 야구야”
프로야구 내일 개막
kt vs KIA ▶ 18·19·20면

도시와 피부 사이
빈틈없는 시티 선크어
헤라 선 메이트 프로텍터

HERA
SUN MATE PROTECTOR
SPF 50 PA+++
C.U.T. System
Control of UV Top

• 전국 백화점 및 이모레키온셀리를 통해 구입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s://www.hera.com> • 고객센터: 080-023-5454